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4 ~ 2/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6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만다라	Carlton Books	담앤북스
2	인생수업	법륜스님	휴	7	뒤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경스님	마음의숲	8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조계종 신불학기 홍문, 영신당	모과나무
4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이일야	담앤북스	9	낭송 선어록	문성환	북드라마
5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스님	불광출판사	10	법망경보살계분취해	이원정목장	운주사



어둠에 가려진 조선불교의 속살 파헤쳐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한국불교사에서 역불정척을 썼던 조선 불교는 여전히 어둠으로 존재한다. 역사에서의 불편한 기억 때문이다. 정치로부터 한결같이 강제된 피지배적 상황, 인적 물적 억압과 종교적 침체 등 이 시대 불교 경향들 대부분은 우울하다. 이런 기억들을 되짚는 일이 편할 리 없다. 조선 불교의 역사는 불교가 꽃피었던 신라나 국교 지위를 누린 고려와 대비되면서, 그 쇠락상이 더욱 부각됐다. 어쨌든, 그동안 한국불교사 연구서 조선불교가 소외된 배경은 이런 사정들과 무관치 않다. 저자가 바로 불교공부부를 하며 조선 불교에 찬찬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인기 없는 조선불교를 마음에 두고 속제로 삼아 온 지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다. 조선 불교는 처음에 상식과 선입견 수준 그대로 어둠 질은 한 시대의 역사로만 읽혀졌다. 하지만, 점차 조선불교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쉽게 간과해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일찍이 경험 못한 5백 여년의 역경을 겪으면서도 불교의 생명력을 유지한 이 시대 불교인들의 의지와, 고난 극복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 노력들이 특히 그렇다”고 술회한다. 이어 저자는 “기존 시각에 대한 반성적 의미에서 조선불교를 오히려 과대평가하는 듯한 인식은 타당한 것이며, 또 다른 면모는 없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진행된 조선 불교의 탐구와 천착이 큰 기쁨이고 사명이었다”며 “책에 실은 글들은 그동안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재 정리 한 것으로, 조선불교 실상을 규명하고자 한 출발 시점의 본래 의도는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자위를 삼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이봉춘 지음
민족사 펴냄
4만 3천원

비참하기까지 구제적인 불교 탄압의 예도 저자는 소개한다. “세조대부터의 고승으로, 세조 사거 후에도 특히 자성·인수 양대비를 도와 사찰중수와 불전 국역간행 등 불사를 도운 학도(學道)의 머리를 부채로 때려 파가 흐르게 한 유생도 있었다. 또한 중진들과 가까이하며 불사를 대성한 그를 주벌해 불교의 근본을 끊자는 상소가 계속됐다. 또 성종 24년 3월에는 유생들이 재궁의 법당에 들어가 불경을 훔치고 불상을 훼손하고 승려를 붙잡아 난타하며 도첩을 빼앗는 폭행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했다. 유생들의 이 같은 횡포가 국가의 배불정책과는 직접 관계가 없었지만, 이는 당시 배불의 한 경향과 분위기를 방증했다”고 밝혔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부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불·유교대의 배경과 초기 불교정책

불교와 유교가 교대하는 역사적 배경으로서 먼저 주목한 바는 고려 후기 불교 특히 그 말기 불교의 현실들이다. 이를 불유 교대(交代), 다시 말하면 조선에서 시작한 승유억불정책의 내적 요인으로 봤다. 억불과 배불의 원인이 일차적으로는 불교 자체에 있다고 본 인과론적 관점의 이해이다. 그 밖에 성리학 전래에 따른 고려 후기의 사상적 변화 속에서 일어난 신흥사대부 계층의 배불 여론과 기세를 그 외적 요인으로 파악했다. 불유 교대(交代)의 작업은 이 같은 배경 아래서 새 왕조의 혁신정치와 함께 가시화한다. 태조대의 견해가 엇갈리는 탐색단계를 거쳐, 태종대에 본격적인 배불을 단행하고, 다시 세종대에는 그것이 더욱 강경하게 이어져 간다.

배불의 강호와 고착

조선의 유교국가 체제는 태종대에서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성종·중종 대를 거치는 동안 안락벽을 기해 간 배불정책과 그 결론적인 불교의 현실상황을 밝힌 것이다. 조선조 배불의 전체 맥락에서 살필 때 태종·세종 대에는 불교의 경제적 억압과 인적 조직의 해체가 중심관계였다. 이에 비해 성종 대에는 불교의 기반적인 국가제도와 전통적인 각 종 불교 유습(遺習)의 제거가

강행되고, 연산군은 그나마 정책의 원칙과도 무관하게 아예 우발적이라 할 파불(破佛)을 자행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중종대의 폐불 정책으로 이어짐으로써 조선 전기에 이미 배불의 윤곽을 거의 확정짓고 있다. 이 같은 배불의 강화 및 그 상태의 고착은 유교국가 체제가 구축·완성되는 것과 궤를 함께 한다.

흥불정책과 교단의 자립활동

불교 억압과 배제 시대에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흥불의 흐름이 엄연히 존재했다. 이는 특히 조선 전기 중에 몇몇 승불주의 의욕적인 불교정책과 사업으로도 나타나고, 조선조 전시대에 걸친 지도적 고승을 비롯한 교단 구성원들의 활동과 노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앙과 의례를 통해 불교의 저변 세력을 형성해 간 일반 대중의 변함없는 지지 역시 중요한 흥불 요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불교 전반을 국가의 정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 시대 불교의 실제 파악을 가로막고 자칫 불교인들을 자조감과 패배의식에 빠지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흥불과 교단 유지에 대한 조선불교인들의 다양한 활동과 끈질긴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조선불교의 인물과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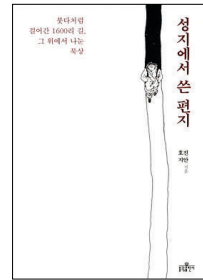
유난히 고난 깊던 조선불교에서도 이런 사실은 예외가 아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선두에서 고뇌한 불교인들이 적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몇몇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과 사상을 조명했다. 이들의 사상은 저마다 의미 있는 삶의 지표가 되고, 호법·흥법 활동 기반으로 작용했다. 선초불교계의 자존심이라 할 만한 지성으로서 그 시대에 빛을 발한 자초와 기화, 스러진 불교를 양장서 다시 세우고 순교한 보우, 출세간과 세간의 지도자 유정, 배불의 부당성을 국왕에게 직접 상소한 처능, 그리고 근세 선문의 증후조 경허의 사상들은 한결같이 불교 지도자다운 깊이와 품격을 느끼게 한다. 이들 고승 외에 효령대군에게서는 신불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소신껏 담당해 간 불교의호자의 한 전형을 엿볼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저자 이봉춘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사학위 석사를 받았다. 이후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동 대학원장,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원장, 원효학 연구원 상임연구원을 지냈다. 현재는 한국불교학회 이사 및 동국대 명예교수, 현대불교문화연구원장으로 있다.

붓다의 땅에서 만난 인간 부처의 원형



성지에서 쓴 편지
호진 지안 지음
불광 펴냄
1만 5천원

편지글은 언제 다시 읽어봐도 새롭다. 시절 인연에 따라 빛바랜 추억의 강도가 프리즘처럼 달라지기 때문이다. 2010년 나온 <성지에서 쓴 편지>는 더욱 그렇다. 성지에서 주고 받은 수행자들의 단상과 깨달음이 오토이 녹아 있어서다.

지난 2008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를 역임한 호진 스님은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67세)에 인간 부처의 원형을 찾아 인도로 떠난다. 그리고 스님은 1년 동안 1,600리 길을 순례하며 前 총림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과 서신을 주고받는다. 이 책은 그 편지글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 불교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더 나은 미래를 그려 나가는 두 스님의 대화속에는 어떠한 미사여구도 등장하지 않지만, 몸소 체험한 진실이 이야기라는 점에서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미리 유서까지 쓰고 죽을 각오로 길을 떠난 수행승의 고독과 고난, 진실을 갈망하는 두 학자 스님의 끝없는 탐구심은 출간 당시 큰 화제를 일으켰으나, 책은 여러 사정으로 절판되었다. 그러는 동안 이 책에 대한 독자들의 문의들이 늘면서, 새로운 숨결로 다시 태어났다.

1년동안 1,600리길 순례 역정 담겨

서신 통해 전해진 두 학자의 학문 열정

호진 스님은 서문에서 “초기불교가 불교의 뿌리라면 대승불교는 꽃이다.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나와 지안 스님은 연구 분야와 방법이 다르다. 나는 초기불교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지안 스님은 대승불교를 전통적 방법으로 연구한다. 같은 불교 연구이지만 붓다와 교리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같은 곳에 묶여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 생각했다”고 출간 동기를 밝힌다.

호진 스님은 신화와 전설에 가려 비역사적 인물로 묘사되는 부처님의 실제 모습과 근본 가르침을 밝히는 데서 새로운 붓다상을 찾고자 했다. 겹겹이 벗겨내고 알맹이를 드러내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자는 생각에서였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며 연구 노트 첫머리에 이렇게 썼다. “역사적인 부처님을 참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신화와 전설을 제거해야 한다. 나의 공격 목표는 신화와 전설이다.”

한편 지안 스님은 순수성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지나친 선전과 방편 연구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경계하고, 스스로를 성찰해 순수한 구도자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분별심을 버려 종파를 극복하고, 과거에 안주하기보

다 끊임없이 거듭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불교 상을 찾는 두 스님의 노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 과정에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책이다.

호진 스님은 초전법륜의 길(보드가야-사르나트) 278km, 열반의 길(라즈기르-푸시나가라) 353km를 두 발로 걸었다. 그 옛날 부처님이 걸었던 길을 고스란히 따른 것이다. 목적은 분명했다. 역사적인 현장에서 부처님의 참모습을 되살려내고, 불교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다. 50도에 육박하는 한낮의 열기도, 부서질 듯 파고드는 다리의 통증도 스님을 멈추지 못했다. 오히려 몸의 고통은 부처님이 겪었던 그것과 대비되어 스님의 각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렇듯 고행에 가까운 순례를 가리켜 지안 스님은 순교자적 순례, 살을 에는 고통 속에 탄생하는 전복 속 진주에 비유한다. 더불어 먼 곳에서 외롭게 사투를 벌이는 도반 스님에게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는 스님의 마음에도 다시금 열정의 불이 지펴진다.

이 책은 호진 스님이 순례 과정에서 체험하고 사색한 내용과 이에 대한 지안 스님의 답문으로 이뤄진다. 전체적인 구성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그려지는 두 스님의 모습은 입체적이다. 특정 주제에 관해 상반된 견해로 대립할 때면, 각자가 지닌 학자로서의 열정과 고집이 드러나는 반면,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며 그리움을 전할 때는 진한 우정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서로를 몰도 없는 의지처이자 자극제로 삼아살아가는 두 도반 스님의 다채로운 모습을 엿보는 것 또한, 이 책을 읽는 즐거움이다.

아무리 걸어도 2,600년 전 부처님은 결코 만날 수 없다. 그 사실을 호진 스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다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부처님 곁에 다가서고 싶은 소망이 스님을 붓다의 땅으로 이끌었다. 보드가야에서 사르나트로 가는 동안 스님은 잠시도 한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비 내리는 밤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모기떼에 쫓겨 잠 못 이루던 밤 나무 아래서, 긴긴 밤을 홀로 외롭게 지새웠을 부처님을 생각했다. 마침내 사르나트에 도착했을 때 흘렸던 눈물은 끝내 닿지 못할 부처님을 향한 그리움이었는지 모른다.

호진 스님은 부처님이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고뇌하고, 회의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과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인간적이어서 존경스럽고,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그의 삶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운명을 다해 좇는다고 스님은 말했다.

김주일 기자

신비한 운명의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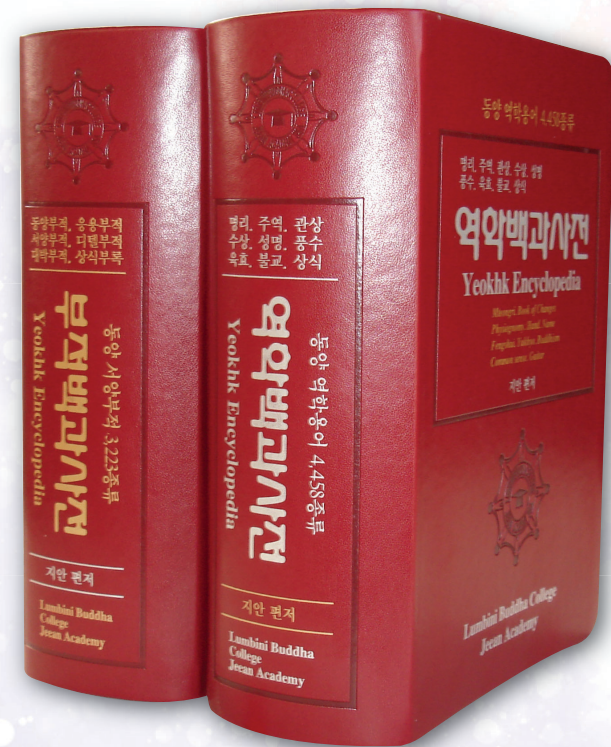
동·서양부적 총 집대성



부적백과사전

- 제1편-육십갑자신묘부적·안전제해예방부·삼재소멸부·복약효력부
- 제2편-만사형통부·만사형통남사주부·개운팔진양둔팔부·천신통령부
- 제3편-물고기자리부·영문형 희관야·서양수술행복양부·서양수술화합결합부
- 제4편-사랑부적·재물금전부·학업진학부적·고사개업부적·자식임신부적
- 제5편-대박추첨1일부적·희관야성취12지부·사업번영부적 부록 : 사주 해인도

미국역학사 자격증 과 신인증



동·서양부적 3,223종 ● 동양역학용어 4,458단어

역학인의 필독서

동양의 역리학 음양오행은 우주 자연 섭리에 따른 진리의 학문이요 우리 삶의 이정표이며 생활의 지표이다.

역학백과사전

가취대흥일(嫁娶大凶日)·가취월(嫁娶月)·갑경충(甲庚沖)·나경(羅經)·오행(五行) 박환(剝換)·마장격(魔障格)·단명상(短命相)·사자자리Lee·양류목(楊柳木) 육효(六爻)·흉궁(胸宮)



특별혜택 **동행요집, 역학백과, 부적백과 3권을 구입하시면** 미국사회단체법인 미국동양철학 교사자격협회(Aug. 15, 2013)에서 동양역학상담사, 동양철학교사 자격증, 승려증, 법사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자격증신청 : 책 구입처(주문업체)에 여권용 컬러사진 1장, 신상명세서(성명(한글,영문),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를 적어 제출해 주시면 발급과정을 거쳐 보내드립니다.

※가까운 불교상점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도서출판 아이 공급원 가야기획 TEL: 02-379-2400. 031-948-0340 FAX: 031-948-3291